

현장과 시각

기초의회 추락, 누구 탓인가



장필수

사회2부 차장

전남지역 일부 시·군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속속 벌어지는 주민소환운동이 단적인 예다.

군의원들이 지난해 말 자신들의 의정비는 올리면서도 주민 대다수가 농민인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장성군과 곡성군에서 군의원 소환요구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장성군의 경우는 군의회와 농민단체가 4일 극적인 합의를 해 소환이 철회됐지만 곡성군 농민들은 소환을 강행할 태세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대해 유권자가 꺼내 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다.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사람을 임기중에 끌어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와 명분이 있을 때 가능하다.

앞서 장성군 의회의 경우 의정비는 35% 인상하면서도 농업관련 예산을 포함해 44억66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군의원들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재심의·의결해 삭감분을 살리고 의정비 인상을 35%중 10%를 사회에 환원키로 약속해 급한불을 끄지만 유권자인 주민들의 매서운 맛을 똑똑히 본 뒤였다.

곡성군의회의 의정비는 44% 인상하면서 4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가 군의회 부의장이자 예산결산위원장이 김모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소환 당할 처지에 놓였다. 예결위원장이지만 전체 군의원 7명 가운데 1명만 소환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주민소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지역민이 더 많은 것 같다.

지난달 31일 결면사무소에서 열린 곡성군수의 '군민과의 대화' 자리는 한 농민이 해당 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소환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상당수 참석자들이 호응하면서 군의원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지난달 29일에는 담양군의회의장과 의원이 전남 예산내역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던 담양군수에게 항의하기 위해 군수실을 찾았다가 군수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주민소환에 직면하고 견제 및 감시 대상인 자치단체장에게 무시당하는 기초의회의 이같은 현실은 권위와 신뢰를 잃은 지방의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주민소환 운동이 의원들의 주장처럼 '정치공작'인지 아니면 '민심의 소리'인지는 소환투표가 진행되면 드러날 일이다. 하지만 신뢰없는 의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의원을 자신의 뉘그러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bungy@kwangju.co.kr

삼성 임직원 2명 첫 입건

삼성특검, 자료 삭제 지시·실행 증거 인멸 혐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용 특별검사팀은 5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삼성화재 김승연(51) 전무와 김모 부장 등 임직원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인 김 전무는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회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보험금 인출금 내역 등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김 부장은 자료 삭제를 직접 실행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과 4일 이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했지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4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전산자료 등을 삭제한 이유를 캐묻는 한편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자

료 삭제 행위가 그룹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없어진 자료가 비자금 관련 문서가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측은 이들이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잠적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곧바로 체포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법 또는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밖에 그룹측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행위에 가담한 점을 들어 횡령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 삼성전기 이무열 상무 등 계열사 임직원 3명, 오후에 삼성카드·생명·화재 등 금융계열사의 전무·상무 등 임직원 4명 등 총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백준 총무비서관 내정자 소환

BBK 특검 "미법원 김경준씨 배상 판결 자료 검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5일 BBK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내정자를 불러 조사한다.

당선인의 고리대 상대 1년 선배인 김 내정자는 당선인과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했던 LKe뱅크의 부회장으로 일하는 등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로서 BBK 의혹을 풀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검팀은 이날 김 내정자를 상대로 BBK 설립 경위, BBK와 LKe뱅크와의 관계, 당선인이 김경준씨의 읍서넬벤처스 회

령 및 주조작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LKe뱅크에서 비서로 일했던 이진영씨를 조사한 특검팀은 이날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BK 투자자들도 불러 당선인이나 김 내정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미국에서 읍서넬캐피탈의 소액 주주들이 김경준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이 판결이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남북 150명씩 공동응원

개성 실무접촉서 합의 경의선 이용 진전 없어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베이징(北京) 올림픽 공동 응원단 참가 문제가 응원단 규모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첫 발걸음을 뚫었지만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문제는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응원단 구성 건의 경우 4일 개성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남북이 올림픽 기간을 전·후반기로 나눠 남북

각각 150명씩 총 300명으로 구성된 응원단을 두차례 파견키로 합의함에 따라 가시적 진전이 이뤄졌다.

남은 과제의 핵심은 이 사업의 다른 한 축인 경의선 철도 이용이라고 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른바 '올림픽 열차'가 남북 응원단을 싣고 출발, 평양 등지에서 북측 응원단을 태운 뒤 베이징까지 관광 달린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구상으로, 남북은 이를 실현키 위해 철도 긴급 보수 문제도 병행해 협의키로 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힐러리 추월 박빙 선두

美 대선 '슈퍼 화요일' 여론조사... 공화 매케인 독주

미국 대선후보 경선의 승패를 가름할 '슈퍼화요일' 결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제치고, 선두로 나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화당에서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선두를 고수해 '슈퍼화요일' 경선이 끝나면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마이 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누르고 사

실상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 통신과 C스캔, 여론조사기관 조그비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는 캘리포니아에서 46%의 지지율로 힐러리(40%)를 오차범위(±3.2%) 밖으로 따돌리며 선두로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는 하루 전 조사에서도 45%의 지지율로 힐러리(41%)를 앞섰으나 격차를 확대하는 추세다.

오바마는 미주리주에서도 47%의 지지율로 힐러리(42%)를 제치고 오차범위(±3.4%) 밖 선두로 나섰다. 오바마는 전날 발표된 조사에서 43%의 지지율로 힐러리(44%)에게 뒤졌으나 하루 사이 선두를 뒤바꾸는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힐러리의 안마당으로 여겨온 뉴저지에서도 오바마는 43%의 지지율로 힐러리와 동률을 이뤘으며, 조지아에서는 흑인 표의 압도적 지지로 힐러리를 17% 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조사전문가 존 조그비는 "오바마가 탄력을 받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슈퍼 화요일'은 오바마를 위한 밤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이 오피니언 리서치사와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4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오바마 지지율이 49%로 힐러리(46%)를 오차범위(±4.5%) 내에서 앞섰다. 그러나 CNN이 오피니언 리서치와 갤럽, 퓨, ABC, CBS 5개 기관의 조사를 합산한 결과, 힐러리는 전국 지지율에서 45%의 지지율로 오바마(43%)를 여전히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에서는 매케인 상원의원이 뉴욕과 뉴저지, 미주리 등에서 롬니를 두 자리수 차이로 앞서며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C스캔-조그비 조사는 밝혔다.

롬니는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이 걸린 캘리포니아에서 앞서고 있으나 매케인의 승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허커비는 3위로 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둔 4일 보스턴에 있는 자신의 선거운동 본부에 들러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눈물 '슈퍼 화요일'에도 통할까

사상 첫 여성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또 눈물을 흘렸다. 미국 대선 후보경선의 승패가 달려있는 5일 '슈퍼 화요일' 결선을 하루 앞두고 오바마가 선두로 나섰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따르는 가운데 유권자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만 것이다.

힐러리는 지난달 초 뉴햄프셔 프라이머(예비경선)를 앞두고서도 유권자들과 대화 도중 눈물을 보인 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를 닦아 화제가 됐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첫 승을 거둔 오바마 돌

풍에 밀려 패색이 짙던 힐러리는 이 눈물로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힐러리가 두 번째 눈물을 흘린 곳은 코네티컷주 예일아동연구센터.

예일대 로스쿨 출신인 힐러리는 학창시절인 1970년대 함께 아동운동을 벌였던 켈 로빈 변호사의 소개를 받은 뒤, 감정에 겨워 한 동안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힐러리가 가까스로 승리한 뉴햄프셔 경선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자 이번에도 힐러리의 눈물이 통할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美 2009 회계연도 예산

3조1천억 弗 사상 최대

2009 회계연도 미국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선 3조1천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4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에 이라크 전비를 포함, 테러와의 전쟁 수행 및 군사력 증강 등 안보관련 전비가 대폭 증가하고 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규모 긴급경기부양책이 포함돼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4천10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2004년의 4천13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2009년 적자규모도 4천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재정적자는 작년도 적자 1천700억 달러의 감점이 넘는 규모다. /연합뉴스

E-Supporter 어학원 advertisement. Includes text: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어학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가', '언수비용' table, and contact info: 0621 264-0882, 010-2255-0459.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남골당' (Gokrakjeon Namgol-dang). Includes text: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법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and contact info: 062-238-0108, 010-5103-4004.